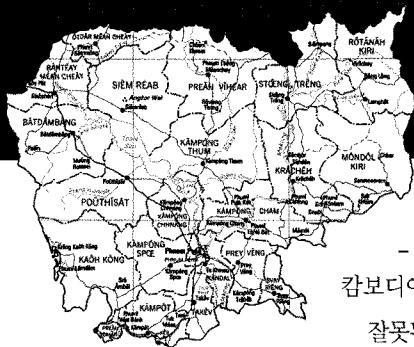




캄보디아는 아직도 '킬링필드'의 어두운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그늘을 벗고 풍부한 자원과 국가차원의 해외투자유치 노력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곳이 캄보디아의 현재이다. 지난해 말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로 더욱 매력적인 교역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캄보디아를 살펴본다.

글_ 이주필(INKE 캄보디아 프놈펜지부 의장, Dialany Internet Telecom CEO)



_ 캄보디아 바로 알기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과는 달리 입헌군주국으로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다. 캄보디아를 베트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를 킬링필드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1년 파리평화협정을 계기로 오랜 전쟁이 종료됐고, 1993년 UN의 통제 아래 제1차 총선을 치렀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을 해결하고, 입헌군주국으로 탈바꿈했다. 뒤이어 1992년 제정·공포한 토지법을 근거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토지등기제도를

도입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2003년 제3차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CPP당(캄보디아 인민당)이 승리하면서 정치안정의 기틀을 잡았으며, 이후 경제발전이 급속히 진행됐다. 훈센 총리는 경제개발, 관광 산업발전, 고용 확대에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고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4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70년도 초반과 유사한 모습이다. 경제개발에 따른 이농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 최고의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대 이하 젊은이의 비율이 70%에 달한다. 또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양질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캄보디아 경제 개요

GDP	85억 달러(2007년)
1인당 GDP	600달러(2007년)
경제성장률	9.6%(2007년)
물가상승률	5.9%(2007년)
대외채무	35.3억 달러(2006년)
외환보유고	21.4억 달러(2007년)
화폐단위	리엘(RIEL)
환율	1달러= 약 4,200 리엘
산업구조 (GDP대비)	1차 산업(농림수산업) : 31.9%
	2차 산업(공업 및 건설) : 26.8%
	3차 산업(서비스업) : 41.3%
대외무역	총교역액 : 95.1억 달러 (수출 : 40.9억 달러, 수입 : 54.2억 달러)
	주요수출품목 : 봉제(70%), 쌀, 생고무, 신발 등
	주요수입품목 : 석유(32%), 차량, 직물 등

▶ 캄보디아 투자의 매력

한국은 2007년 기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4위 국가다. 이미 캄보디아 외국인투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교역액은 2억 9천만 달러에 이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중고차·자동차 부품·플라스틱 제품·의약품이고 수입 품목은 의류·천연고무·수산물 등이다.

1994년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발효하고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설립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WTO가입으로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100% 소유지분을 허용하며, 법적으로 외국인과 현지인의 사업 차별화를 금지한다. 특히 투자자본의 유출에 대해 다소 제한을 두는 주변국들의 법제와 달리 캄보디아는 과실 송금과 투자자본금의 반출이 자유롭다. 이와 같이 캄보디아는 적극적인 개방 정책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임에 틀림없다.

더불어 지난 11월 1일부터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로 캄보디아 수출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국내 물품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일반 품목군은 관세율을 점차 인하해 2015년에 무관세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최근의 미국발 세계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캄보디아도 투자 유치 규모가 줄어들면서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미비,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캄보디아는 2010년 석유의 상업적인 생산과 앙코르와트라는 세계

적인 관광 자원 때문에 가장 먼저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예정되어 있는 증권거래소 개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익창출의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미 미국의 세브론과 일본의 미쓰이, 한국의 GS 칼텍스가 합작해 시아누크빌 해안에서 원유를 발견하고 2010년 상업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계은행은 “캄보디아의 해저 석유 매장량이 최소 20억 배럴, 천연가스는 10억 feet³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천연자원 개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은 해가 갈수록 탄력이 붙을 것이다.

▶ 캄보디아 진출 시 유의 사항

캄보디아 진출 아이템 선정 시 내수 상품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내수용 상품은 태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저가품이 유입되며 밀수도 만연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와 캄보디아 측 파트너 간의 분쟁 발생 시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제3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 캄보디아 측의 자의적인 해석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지파트너 선택 시 첫 단계는 누가 또는 어느 기관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일로, 캄보디아와 같이 경제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국가에서는 의사 결정 권한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점의 파악은 파트너 물색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에는 거의 모든 분야의 중소형 제조 수출 산업 진출이 가능하나 정밀한 투자 타당성 조사 및 성공을 위해 가급적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지 시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INKE나, KOTRA 또는 현지 우리나라 은행, 성공한 교민이나 우리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KE 프놈펜 지부

INKE 캄보디아 프놈펜 지부는 캄보디아 시장에 정통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IT, 통신 분야는 물론 군수물자·화장품·광산·현지 금융상품까지 다양한 분야를 커버할 수 있어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한국의 벤처기업에게 다각적 지원이 가능한 장점을 자랑합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고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바, 2009년에는 인터넷 쇼핑물·게임·휴대폰 솔루션·금융 솔루션 등 관련 IT기업이 캄보디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희망합니다.

Tel : +855-23-720-270 / Fax : +855-23-720-271

주소 : 1&2 Floor, No.39, Shihanouk Blvd. Daun Penh, Phnom Penh, Cambodia